

지역별 결과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



2015

**AUTHORS:** Tehmina Abbas, Eva Anderson, Katherine Dixon

**CONTRIBUTORS:** Adnane Allouaji, Keith Christensen, Santi Dharmawan, Carolina Hernandez, Han-Beom You, Hilary Hurd, Dr Iftekharuzzaman, Subin Kim, Karolina MacLachlan, Yeshua Moser-Puangsuwan, Tabassum Rasheed, Gavin Raymond, Rezwan-Ul-Alam (PhD). Some contributors have chosen to remain anonymous.

**DESIGN:** Ivo Jongejan, SVI Design, Rational International

© 2015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All rights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ermitted, providing that full credit is given to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TI-UK) and provided that any such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not sold or incorporated in works that are sold. Written permission must be sought from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if any such reproduction would adapt or modify the original content.

Published November 2015

ISBN: 978-1-910778-04-3

Printed on 100% recycled paper.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report. All information was believed to be correct as of October 2015. Nevertheless,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can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its use for other purposes or in other contexts.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s registered UK charity number is 1112842.

#### THANKS

Transparency International Defence & Security would like to thank all the governments and individuals who have encouraged us to do this study and those who engaged with us throughout the process.

Transparency International Defence & Security would like to thank the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for their generous support. This material has been funded by UK aid from the UK government. The views expressed do not reflect the UK government's official policies.

**본 지수는 전 세계 국방 기관의 부패  
위험을 측정합니다.**

**지역의 결과입니다. 더 많은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 GI)는 국방 및 안보 기관과 그 집행에 대한 부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의 존재 여부와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본 기구의 전문가팀은 국방 기관의 청렴성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정부에 제공하기 위해 폭넓고 다양한 출처와 인터뷰를 통해 77개의 지표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합니다.

본 보고서는 본 기구의 데이터에서 얻은 국가 위험 순위를 공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의 추세를 검토합니다. 본 보고서를 위해 연구 결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지에 있는 국가 17곳을 선정했습니다.



# 목차

|                                |    |
|--------------------------------|----|
| 목차 .....                       | 1  |
| 아시아의 국방 투명성 .....              | 2  |
| 역동적인 아시아의 비밀스러운 국방비 .....      | 3  |
| 국방 예산 감시: 조사 결과 .....          | 4  |
| 베일에 싸인 용 .....                 | 6  |
| 책임성을 통한 신뢰 구축 .....            | 6  |
| ASEAN: 책임감 있는 지역 세력인가? .....   | 9  |
| 호랑이 길들이기 .....                 | 11 |
| 일본: 전략적 재보장으로서의 책임성과 투명성 ..... | 12 |
| 공금의 낭비와 안보 훼손 .....            | 13 |
| 효과적인 독립 기관의 중요성 .....          | 15 |
| TI-DSP의 역내 활동 .....            | 17 |
| 출처와 증거 .....                   | 18 |
| 방법론 .....                      | 19 |
|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에 대하여 .....        | 19 |

# 아시아의 국방 투명성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새로이 부상하는 국가들의 근거지이며,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군비 지출이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군비는 441%, 인도는 147%, 대한민국은 106%, 파키스탄은 107%, 방글라데시는 202%, 스리랑카는 197% 증가했습니다. ASEAN 내에서도 인도네시아는 189%, 태국은 207%, 캄보디아는 311%, 필리핀은 165% 증가하는 등 막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시아의 국방 예산 규모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새로운 세력들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통제될지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본 기구는 조사를 통해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면 흔히 기밀성은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책임성과 감시, 투명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근린국과 외부 세계는 물론이고, 해당 국가의 국민들조차 국가가 어떤 의도로 급속하게 군사력을 확대하는 것인지 언제나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군의 거버넌스(governance) 상태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 일부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군비 증가와 군사 엘리트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간에 큰 격차가 있어 역내 안정에 위협적입니다.

**둘째,** 중국의 여러 근린국이 자국의 국방 전략과 획득 계획에 중국의 군사력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내 각지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 청렴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이 국방력에 대하여 중요한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떤 경우에는 군대가 그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형편없는 조달 관행에 따라 공금을 유용함으로써 정부의 공신력이 훼손되었습니다. 조사 대상국 중 65%에서 부패 문제를 다룰 역량과 의사가 군에 있는지에 대한 공신력이 매우 낮았습니다.

아시아에서 국방력의 청렴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본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서로 영유권 주장이 겹치고 국방 예산이 증가하면,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에 근거하여 군사력의 통제 방식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확립해야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로 인해 국가의 정당성과 안보가 위협 받는다는 것을 역내의 많은 리더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강력한 독립 기관을 설립하거나 역내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더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군사적 효과성을 강화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경을 지킬 뿐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 번영과 안정을 유산으로 남기게 될 것입니다.

#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 지역별 등급

표1: 국가 위험 등급과 역내 순위, 2015

| 순위  | 국가    | 등급 |
|-----|-------|----|
| 1.  | 뉴질랜드  | A  |
| 2.  | 호주    | B  |
| 3.  | 대만    | B  |
| 4.  | 일본    | B  |
| 5.  | 싱가포르  | B  |
| 6.  | 대한민국  | C  |
| 7.  | 인도    | D  |
| 8.  | 말레이시아 | D  |
| 9.  | 필리핀   | D  |
| 10. | 인도네시아 | D  |
| 11. | 방글라데시 | D  |
| 12. | 중국    | E  |
| 13. | 태국    | E  |
| 14. | 파키스탄  | E  |
| 15. | 스리랑카  | E  |
| 16. | 캄보디아  | F  |
| 17. | 미얀마   | F  |

(파키스탄과 미얀마는 TI-DSP의 2015 취약 국가 보고서(2015 Fragile States Report)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호주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은 TI-DSP의 2015 G20 보고서(2015 G20 Report)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 GI)는 국방 기관의 부패 위험 수준을 측정하여 각 국가에 A(가장 좋음)부터 F(가장 나쁨)까지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등급은 7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의 점수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문항마다 0부터 4까지의 점수를 정부에 부여합니다. 그 종합 백분율 점수에 따라 해당 정부가 속한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다섯 가지 위험 분야에 대하여 국가마



다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정치적 위험과 재정적 위험, 인사 위험, 작전 위험, 조달 위험입니다. 이러한 위험 분야에 대한 상세 점수는 [government.defenceindex.org](http://government.defenceindex.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GI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역동적인 아시아의 비밀스러운 국방비

경제가 성장하면서 군사력을 급속도로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경우 안보 긴장이 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 대상국 17곳은 2014년에 약 4327억 달러를 군비 지출에 사용했으며, 이는 전 세계 군비의 24.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의 많은 부분은 고도의 기밀로 남아 있습니다.

국방 부문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방 예산의 감시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흔히 최소한도로 그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설명할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개하면 국가 안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을 곧잘 이용하곤 합니다. 이는 정보 기관과 국가 보안 관련 지출인 “기밀” 예산의 경우에 더욱 확연해지는데, 이러한 부문에는 감시 메커니즘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합니다.

## 국방 예산 감시: 조사 결과

- ◆ **공적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국 17곳 중 6곳만이 공적 감시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상세 사항을 포함시켜 국방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 ◆ **국회 감시가 부족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국회 국방 위원회는 국방 의사결정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국가 중 8곳의 경우, 위원회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없거나 이러한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 **기밀 예산에 대한 책임성의 부재.** 조사 대상국 중 77%는 기밀 예산에 대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중 절반 이상은 입법 기관 또는 국방 입법 위원회에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출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 국가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 방위 사업

국방 기관의 경제 활동 관여는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며 관여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아시아의 몇몇 국가에서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기업이 기관 수준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평가 대상국 17 곳 중 9 곳에서 국방 기관 및/또는 직원이 국가 천연 자원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 개 국가는 상업 기업의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전과 재정 관련 투명성은 전혀 없거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감시를 위한 독립 감사(또는 이와 동등한) 메커니즘이 충분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 ◆ **파키스탄**에는 2007 년에 100 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 군의 거대한 기업 왕국에 대한 투명성이나 효과적인 감시가 없었습니다.
- ◆ 2013 년, **인도** 군이 국유지에서 불법적으로 골프 코스를 운영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공군 장교들은 쇼핑물이나 영화관과 같은 비인가된 용도로 국방용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왔으며, 인도 국방 기관 역시 국가의 천연 자원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 **방글라데시**에서는 조사한 결과 군 장교들이 목재 사업체와 토지 및 삼림 자원 “챙기기”를 통해 국가의 천연 자원 개발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기관 수준에서는 퇴역 장교 복지 협회인 Sena Kalyan Shangstha 를 통해 군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정난에 처한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군의 경제 관여를 조장했습니다:**

- ◆ **미얀마**에서는 군이 군 사령관들에게 자립 정책을 장려하며 수익을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비공식 과세와 국가 자원의 이권 판매, 대규모 양귀비 재배와 판매, 무분별한 천연 자원 개발이 일어났고,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에서 국가간 밀수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를 지배하는 대기업 2 곳, the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UMEHL)와 the Myanmar Economic Corporation(MEC)을 군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체의 경영권은 최근에 들어와서야 신속하게 이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투명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양조, 보석, 은행업, 각종 상품 등, 이 중 많은 사업체들은 분명하게 민간 부문에 속해 있지만 주식을 소유한 고위 군 장교뿐 아니라 군 내부의 부서에도 이윤이 축적됩니다.
- ◆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 예산 중 군에 할당된 자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소요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2015 년에는 군사 소요 중 50%만이 국가 예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왕국에서 군대를 분리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직접 소유한 모든 군 사업체는 2009 년에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지만, 복합 재단과 협동 조합은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 상태로 그 지배하에 남아 있으며 군 예산을 5%에서 20%까지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대 사업체와 천연 자원의 대규모 무단 개발이 이에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 베일에 싸인 용

국제 사회는 국방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10년 이상 중국을 압박해 왔으며, 중국 정부는 2015년에 처음으로 국방 전략을 공표했습니다. “공해 보호”와 “영공 공격”, “사이버 부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가 전략적 재보장을 제공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제서야 첫 발자국을 내디딘 것입니다. 1995년 이후로 거의 한결같이 두 자릿수로 국방비가 증가한 뒤, 이제 중국은 세계 국방비의 약 12%, 세계 기밀 국방비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기구의 조사에서는 투명성과 제도화된 감시 구조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 여러 항목을 합친 국방비 합계액만 공개되었으며, 중요 항목은 특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 부대와 R&D, 우주 개발의 군사적 요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 ◆ 이러한 항목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식 예산 바깥에서 집행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당사의 조사에 따르면 비공식 추가 비용의 추정치는 총 국방비 지출의 35%에서 50%입니다.
- ◆ 중국 준군사 조직의 비용과 인민 해방군 소유의 법인에서 발생한 자체 수익, 그리고 이러한 자금의 분배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 ◆ 획득 계획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으며 실제 구매와 계획 구매에 대한 상세 사항은 개략적으로만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의 일반 국민은 차라리 외신 보도를 통해 자국 국방력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 책임성을 통한 신뢰 구축

중국의 군사 확대에 대한 역내 신뢰를 구축하려면 투명성 제고 이외에도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국방 역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이에 걸맞도록 정권에 대한 투명한 견제와 균형을 갖추지 않는다면 근린국은 누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 기밀 의사 결정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성을 느끼면, 관찰자들은 그 잠재적 동기가 무엇인지 매우 다양한 여러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신뢰도가 낮으면 새로운 역량에 대한 투명성은 위협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내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국방과 안보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유의미하게 토론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메커니즘이 필수적입니다. 본 기구는 조사 중에 이러한 메커니즘을 거의 또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 이전의 국방 백서에 비하면 접근법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2015년판은 여전히 전략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해양 분쟁에 대한 언급이나, 중국 국방 정책에 대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공적 토론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 ◆ 이론상으로는 전국 인민 대표 회의가 중국 국방 정책을 감독하지만 평가자는 그 영향력이 “극히 적다”고 평했으며, 본 기구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미국 국회에서 중국의 군사력과 국방 예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 ◆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공적 토론이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본 기구의 평가에서는 검열 문화 때문에 전문가들이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견해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상당한 정도로 비판을 검열하고 전통적인 매체 및 새로운 소셜 미디어에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공적 토론이 제한된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 하지만 이따금 정부와 여론 형성자가 소통했으며 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국방 예산에 대한 최근의 공적 토론은 중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한 이후로 가장 개방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부 제공 자원에 기반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것도 검열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 안정에 기여하는 아시아 군

인구 밀집 지역에서 서로 영유권 주장이 겹치고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군사력의 통제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책임성과 기본적인 투명성을 통해 정책과 예산, 군사 행동을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용인 가능한 방식으로 군사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역내 안보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이런 종류의 책임감 있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의 절반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공식적으로 국방 정책을 감시했으며,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일반 국민과 함께 국방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고 국방 예산에는 기별로 나뉜 상세 사항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 일본, 호주,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의 정부는 전략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 협의 절차에 참여하고 있으며, 입법 위원회가 국방비 예산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 받고 있으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 ◆ 대한민국의 국방 백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은 안보 환경이 긴장된 상태에서도 국방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국방 토론에 싱크탱크(think tank)를 끌어들이었으며, 데이터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공적 포괄성과 투명성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 ◆ 또한 군에 대한 확실한 재정적인 통제 수단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대만, 일본, 싱가포르, 대한민국은 여러 국가에서 주요 위험 영역으로 알려진 예산외 지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호주,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만에서는 군 자산의 처분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 ◆ 호주는 국가 안보 문제로 인한 기밀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또한 기밀 예산에 대한 공적 감사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독립 국가 안보 입법 감시관 (Independent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Monitor, INSLM)을 임명한다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 아시아의 A 등급

뉴질랜드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했으며, 다섯 위험 분야 중 세 분야(재정, 인사, 작전)에서도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보다 약간 못한 위험 분야에서도 뉴질랜드는 여전히 확고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작전:** 뉴질랜드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작전에 대한 부패 위험을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탄탄한 접근법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배치 중의 원칙과 행위를 규정하는 다양한 자료가 있어 전략적 수준에서 부패가 작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조달:** (뉴질랜드의 국방 역량 계획(Defence Capability Plan)에서 개략적으로 다뤘던 대로) 2020년까지 전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뉴질랜드의 국방 조달 목표에 걸맞도록 매우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방 조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 **인사:** 뉴질랜드 군(New Zealand Defence Force, NZDF)은 확고한 윤리 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패 문제를 다루는 정신 교육과 가치관 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며, NZDF 전반에 걸쳐 청렴성을 강조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 ASEAN: 책임감 있는 지역 세력인가?

군사적 거버넌스에 대한 아시아의 새로운 규범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잠재력이 ASEAN에 있습니다. ASEAN 정치 안보 청사진(ASEAN Political Security Blueprint)은 공통된 가치를 보유한 규범 기반 공동체로서의 ASEAN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이미 설정했으며 반부패 의향서가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 ◆ **싱가포르**는 확고한 ASEAN 리더로서 떠올랐으며, 견고한 체계가 있어 부패 위험을 다루기 위해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제도화된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국방과 관련된 큰 공공 지출 액수 등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위치가 약화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방 외무 국회 위원회(Government Parliamentary Committee on Defence and Foreign Affairs)는 여당이 임명합니다.

- ◆ **말레이시아**는 군대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으며 일부 중요한 영역에서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반부패 위원회(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MACC)는 이전의 폐쇄적인 기관에 점점 더 많은 외부 조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직원의 사적인 상업 활동은 정부 규제와 행동 규범으로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 **필리핀**은 상당한 정도로 입법부에서 국방 기관을 감시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 평화 안보 정책(Internal Peace and Security Policy, IPSP)인 'Bayanihan'을 공표하면서 안보에 대한 공적 토론의 장을 마련했으며, 활발하고 견고한 시민 사회와 대중 매체를 이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인도네시아**는 인민 대표 의회(People's Representative Council, DPR)와 제1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예산 권한을 행사하고 안보법을 승인합니다. DPR 내에서의 국방 정책에 대한 토론과 감사, 그리고 그 유효성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강력한 반부패 위원회가 군에 대한 관할권을 서서히 늘려가고 있으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ASEAN에서 이러한 포부를 발표하기는 했으나, 각 회원국마다 취약점이 있으며 ASEAN 공동체에서 제시한 책임성과 거버넌스에 대한 청사진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필리핀**을 제외하면 정보 기관과 국가 안보 관련 활동에 할당된 지출 수준을 공개적으로 밝힌 국가는 없습니다. 기밀 예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국회 토론을 위해 감사되지도 않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인도네시아**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정보가 제출 정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에서 예산외 군비 지출을 허용합니다. 또한 ASEAN 가치와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몇몇 사례가 있습니다:

- ◆ **태국**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2007년 헌법이 무효화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국방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쿠데타 이전의 다른 기관은 여전히 준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조사에 따르면 어떤 법을 집행할지는 군부 세력인 군사 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미얀마**에서는 그 자체로 매우 폭넓은 개념인 병무가 여전히 모두 민간 당국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평가자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와 같은 정부의 어떠한 부문도 군을 감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국회에 국방 예산을 제출하였으나,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산 위원회에 임명된 국회의원 1명에게 위원회 의장이 아무 것도 반대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 ◆ **캄보디아**에서는 여당이 국회를 단단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방 감시 역할을 맡은 위원회가 있어 공식적인 구조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감시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합니다.

- ◆ **말레이시아**에서는 국방 정책이 행정부 기구인 국가 안보 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권한하에 있으며, 국방 예산 감시를 책임지는 입법부 기구는 없습니다. 예산은 불투명한 형태로 국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연간 예산 추정안과 함께 제출됩니다. 야당 연합은 MH370과 MH17 항공 사고를 생각하면 국방 감시를 위한 국회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ASEAN은 내부 분쟁의 해결이든 ASEAN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태도를 억제하기 위한 협력이든, 아직 안보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범죄와 국가간 법 집행 문제 등을 비롯하여 종래와는 다른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방 청렴성을 갖추기 위한 정책 의제는 ASEAN의 공통된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방 협력을 보다 심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 **책임감 있는 힘**. ASEAN은 국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역내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SEAN 국방 각료 회의(ASEAN Defence Ministerial Meeting)에서 시행 메커니즘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 ◆ **협력의 심화**. 조사를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바람직한 관행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ASEAN 방위 산업 협력(ASEAN Defence Industry Collaboration, ADIC)을 통해 싱가포르와 기타 지역의 조달 관련 리더들이 가장 바람직한 관행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ASEAN의 평화 유지 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작전에 대한 부패와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공동 평화유지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 **사회적 지원의 강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의 공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국가 결속력에 필수적입니다. 안보 전략에 대한 시민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은 ASEAN 시민 포럼(ASEAN People's Forum)은 물론이고 온건주의 국제적 운동에 관한 랑카위 선언(Langkawi Declaration on the Global Movement of Moderates, 2015년 4월)의 뒤를 잇는 중요한 활동 요소일 수 있습니다.
- ◆ **역내 신뢰의 구축**. ASEAN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ASEAN 지역 질서에서 “평등한 자 가운데 제1인자”로서의 비공식적 지위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근린국에서는 이를 복잡한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뢰의 기반을 쌓기 위해서는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호랑이 길들이기

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군비 지출국인 인도는 확실한 국방 기관 감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기관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인도의 종합 관리 감사 기관(Controller and Auditor General, CAG)은 튼튼하고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자원이 풍부하고 활발한 입법 기관인 공자금 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PAC)와 함께 **활발한 감사를 수행합니다**. 골프 코스 운영에 군 부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를 비롯하여 여러 건의 부실 관리 사례를 밝혀냈습니다. 최고 국방 회계 관리자(Chief Controller of Defence Accounts)의 관리하에 내부 감사 절차가 잘 구조화되어 있으며, 지역 감사부(Regional Audit Offices, RAOs)와 현지 감사부(Local Audit Offices, LAOs)가 보다 낮은 수준에서의 감사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스템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방 기관 감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 CAG는 보고가 너무 늦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잦고, PAC의 감시는 국방부(Ministry of Defence)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대응 조치 기록(Action Taken Notes)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 또한 PAC는 행정부의 권한에 방해를 받아 권고 사항을 거부하기 어렵고, 한편 내부 감사는 치밀한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한 독립성과 자원이 부족합니다.
- 감시의 기반이 되어야 할 일관성 있는 국방 정책의 부재로 인해 감시의 질이 낮아집니다.
- 평가에 따르면 **정보 기관은 입법부에서 감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량 기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서 책임감 있고 투명한 조달 시스템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 중앙 감시 위원회(Central Vigilance Commission)와 그 외 임명된 독립 감시 요원의 **독립적 감시**와 함께 청렴 서약제(Integrity Pacts)를 구속력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위반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관행을 통해, 국방 부패에 관한 인도의 관용에 대하여 방위 산업계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 하지만 엄격한 제도 때문에 조달 절차가 지연되고 국방 근대화 방해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2015년 말에 발효되는 새로운 국방 조달 정책(Defence Procurement Policy, DPP)은 현재 매우 엄격한 회사의 블랙리스트 처리 메커니즘과 중개상 통제에 대해 변경 사항을 제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제안되는 변경 사항은 절실히 필요한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도 반드시 투명성 기준이나 부패에 대한 관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조사에 따르면 조달 절차를 뒷받침할 중앙 입법 체계가 없다는 것과 빈번히 바뀌는 DPP 관련 문제가 눈에 띄입니다.

## 일본: 전략적 재보장으로서의 책임성과 투명성

일본은 올해 안보 입법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집단적 자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의 이러한 역할 변화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비판하는 측에서 일본 국방 기관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군의 청렴한 운영과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책임성.** 일본의 국방 정책은 공적 토론과 입법부의 감시 대상입니다. 준법감찰감실(Inspector General's Office of Legal Compliance)이 철저한 특별 내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일본 감사원(Board of Audit of Japan)은 강력한 독립 기구로서 국방 기구에 대해 면밀하게 비판적 평가를 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 ◆ **조달 투명성.** 방위성 개혁 조사 위원회가 조달 관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맡았고 이는 국방 조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개혁으로 이어졌으며, 대부분의 조달 위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조달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의도가 공개된 중간 계획에 잘 나타나 있으며 연간 보고서에서 잠재 구매를 공개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 ◆ **청렴성 규범.** 방위성 행동 기준은 국가 공무원 윤리법(National Public Service Ethic Law)과 자위대 행동 규범(Self-Defence Force's Code of Conduct)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위성은 방위 인사 심의회(Deliberative Council on Defence Personnel Affairs)를 설립함으로써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규범을 위반하면 엄벌을 받게 됩니다.
- ◆ **정보 공개.** 일본은 주요 국방 정보가 반드시 공적 영역에 있도록 방위성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읽기 쉬운 책자와 상세한 국방 예산, 국방 구매 정보를 공개합니다.
- ◆ **작전 부패 위험.**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 일본은 아직 해외 배치 시의 부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바에 따르

면 교전 규칙을 개정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자위대가 국제 안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려면 부패에 맞서기 위한 강력한 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대내적 지지의 유지

연구 대상국의 65%에서 군이 부패 문제를 다룰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공신력이 낮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SEAN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군 예산이 감시 역량보다 빠르게 확대되면서, 형편없는 조달 관행으로 인해 공금이 유용될 수 있다는 큰 위험이 생기고 공신력이 훼손되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로 인해 정당성이 어느 정도까지 훼손되는지 정치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 ◆ 2013년 **인도**의 'Choppergate' 스캔들에서는 몇몇 정치인과 전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국방 장교들이 AW101 헬리콥터 12대를 공급 받으면서 AgustaWestland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평가자가 강조했듯이, 중앙 수사국(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부패 또는 형사 사건에서 인도 공군 참모총장을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14년 선거 결과의 주요 요인은 정부 부패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새로운 국방 장관(Defence Minister)은 강경하게 반부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중국** 지도층은 군에서 광범위한 반부패 단속을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위 장교도 숙청되었습니다. 특히 Xu Caihou씨와 Gu Junshan씨, Zhou Yongkang씨가 눈에 띄입니다.
- ◆ **스리랑카**에서는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우선시하면서 이전 내각의 부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국방 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부 감시를 고려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비롯하여 몇 가지 제도적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 ◆ **인도네시아**에서는 F-16 항공기가 이륙 전에 폭발하면서 노후한 미국 전투기 24대의 구매 결정 과정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군 사령관에게 조달 정책 및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국방 부패에 맞서 공격적으로 강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형 스캔들이 일어나고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퇴역 군인과 조달청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는 군인 사이에 끈끈한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이후 박 대통령은 군수물자 조달청을 개인적으로 비판했습니다. 3월에는 첫 번째 반부패 법령이 통과되었으

며, 이 중에는 배우자가 선물을 받지 않도록 막지 못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금의 낭비와 안보 훼손

조달 관행이 형편없으면 공금의 낭비 문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 예산을 필요한 바에 맞추어 조정하지 못하면 결국 국가 안보가 훼손되고 대내적인 신뢰가 손상됩니다. 전략적이지 못한 조달은 군의 효과적인 전투력 발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적합하지 않은 장비를 조달하거나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플랫폼을 다수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역내 국가에서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 역내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으며, 많은 연구 대상국의 획득 계획-국가는 어떤 군수 물자를 구매할지 이 절차를 통해 파악합니다-은 취약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 ◆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국방 부패의 심각한 비용에 주목했습니다. 많은 군 장교들이 통영함의 불량 부품을 공급한 지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패로 인해 소위 “최첨단” 구조함은 결국 구조 작전에 배치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인도네시아**에서는 평가자가 예로 든 증거에서 중개상과 브로커가 총 조달 가치 중 최대 30~40%를 가로채고 소요량이 국방부에 전달되기도 전에 계획 단계에서 관여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 장관 Ryacudu씨는 조달 감사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 ◆ **필리핀**은 심각한 해상 안보 문제로 씨름하고 있으며, 획득 계획의 절차는 있지만 감사의 확실성과 공적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된 증거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느 정도까지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원 국방 안보 위원회 (House Committee on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부위원장이 말했듯이, 군사적 구매와 배치는 “불규칙하고...단 1명의 공무원이 본인의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 심의를 거쳐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인도**에서는 인도 동북부의 반군 진압 작전을 이끄는 준군사 조직인 Assam Riflex의 계약 결정이 입찰가의 30% ~ 50%에 달하는 뇌물을 받는 인사들을 통해 사실상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군대가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군이 시민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이는 정부의 정당성 상실로 이어지고 시민 소요 및 폭력 사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군대 내 부패가 역내 불안정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 **미얀마**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국방 및 안보군을 특별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본 기구의 평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군 소유의 구리 채굴 사업을 위해 군이 농부를 상대로 백린 무기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아동 징병, 무급 강제 노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평가자가 발견했습니다. 반란 세력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군대의 감독하에 설립된 민병대 역시 마약 거래 및 생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군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현지에 배치된 군인이 교사 2명을 강간하고 살해했지만 이는 강하게 부정되었으며, 누구든 군이 관련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 Tatmadaw가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 ◆ **인도네시아** 군이 토지 몰수에 관여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역시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지만 이번에는 토지를 임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탐섬의 불법 연료 저장 창고를 둘러싸고 군과 경찰이 충돌했을 뿐 아니라 서파푸아(West Papua)의 뒤숭숭한 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회사에게 돈을 받고 보호를 제공했으며, 마약 밀매와 불법적인 벌목에 군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평가자가 발견했습니다.
- ◆ **말레이시아**에서는 부패로 인해 사바 동부의 안보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증거를 평가자가 발견했습니다.
- ◆ **필리핀**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력 증강자(force multiplier)로서 시민 국방 지역 부대(Civilian Defence Force Geographical Units, CAFGUs)를 군이 모집합니다. 하지만 급료의 일부를 받아가는 상관들과 결탁하여 현지 및 외국 사기업체가 불법 채굴과 벌목에 관여하기 위해 이 부대를 이용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갈등이 심하고 취약한 민다나오 지역이 이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평가자의 언급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 범죄와 처벌, 예방과 감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몇몇 국가에서 대규모 반부패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성 확보와 부패 감소에 초점을 둔 강력한 독립 기관뿐 아니라 국방 감사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구축해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중요한 억지력으로 작용하지만 부패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독자적인 감사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반부패 단속은 대체로 처벌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부패 행위로 기소된 군 장교들의 정확한 수는 불분명하지만, 중앙 기율 검사 위원회(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는 180,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며 중국 공산당과 정부, PLA 간부가 연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중에 강력한 정부 하향식 반부패 메시지를 발견했지만, 공신력 제고에 도움이 될 보다 폭넓은 제도적 변화나 근본적인 투명성 개선에 대해서는 제한된 증거뿐이었습니다.

- 누가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늘어납니다.
-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위험 평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최근에 군사 장비를 위한 경쟁 입찰 정책을 발표한 것을 보면 부패한 조달 관행 때문에 커다란 금액이 낭비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 PLA 감사 부서는 PLA에서 가장 부패한 부서로 여겨지는데, 이전에는 PLA의 종합 물류 부서(General Logistics Department, GLD)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중앙 군사 위원회(Central Military Commission, CMC) 직속입니다. 하지만 청렴성을 갖추고 부패에 맞서는 역할을 맡은 독립적인 기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 사법부와 입법부의 독립적인 감사가 없어, 틀에 박힌 반부패 작업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불투명합니다.

## 효과적인 독립 기관의 중요성

강력한 기관의 중요한 토대는 강력한 입법 근거와 확고한 규칙과 절차입니다. 역내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론상에서나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감사가 취약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면 대규모 공금 절도의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권한의 남용을 파악하고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

는 강력한 감사 기능을 비롯하여 독립적인 감시 메커니즘은 기관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공신력을 쌓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태 지역의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국가 중 29%만이 부패에 맞서는 역할을 맡은 효과적인 독립 조직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7곳의 평가 대상국 중 12곳에서는 국회의 감시를 받고 투명성이 충분한 내부 감사 체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 ◆ 중국이나 태국에는 외부 감사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캄보디아와 미얀마, 스리랑카의 감사 기구는 그 독립성과 효과성이 미심쩍습니다. 대한민국에 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감사 기능이 있었다면, 특히 보다 확고한 내부 고발 문화와 결합되었다면, 최근의 스캔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도는 국방부 내 윤리 또는 반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정된 기구가 없습니다. 또한 감찰감(Inspector General) 직위가 없습니다. 국방부가 사적인 골프 클럽으로 토지를 불법 사용한 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은 것은 공기금 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와 회계 및 일반 감사관(Controllor and Auditor General)이었습니다.
- ◆ 파키스탄의 군사 기금 회계부(Military Accounts Department, PMAD)는 세 국방군 모두와 국방 생산 본부(Defence Production Division), 각군간 정보 조직 확립청(Inter Services Organizations Establishment)의 내부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PMAD는 국방군과 국방 생산에 대하여 각각 하나씩 그리고 현지 감사 부문으로 세분화되며, 현지 감사부(Local Audit Offices, LAO)를 통해 내부 감사 및 결제를 책임집니다. LAO 감사는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투명하지 않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파키스탄의 감사원(Auditor General)이 무려 16억 달러에 달하는 부패와 횡령, 착복을 발견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부 감사 체계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 싱가포르의 조사국(Investigation Bureau, CPIB)는 독립적인 법 집행기구로서 부패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 좋은 사례로서 강제성과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 건에서는 6백만 달러, 다른 두 건에서는 추가 2천4백만 달러에 달하는 예비 부품을 조달하면서 조달 체계를 건너뛰려 했던 해군의 부패한 조달 관행을 말레이시아 반부패 위원회가 발견한 것도 또 다른 좋은 사례입니다.

# TI-DSP의 역내 활동

TI-DSP는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인도에서 TI-DSP는 2013년 5월 TI 인도 지부가 개최한 행사에서 국방 조달의 부패 위험에 대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MoD)와 중앙 감시 위원회(Central Vigilance Commission)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TI-DSP는 인도에서 획득청장(Director General of Acquisition)(국방)과 국내 방위 산업체(국유)와도 교류했습니다. 그 후에는 2012 방위 산업체 반부패 지수(Defence Companies Anti-Corruption Index, CI)에 대해 발표했고, 2013년 12월에는 TI 인도 지부의 청렴성 서약에 대한 행사에서와 2013 GI와 2013 “감시 기구? (82개국에서의 국방에 대한 입법부 감시의 품질)”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2013 GI를 발표한 이후 TI 중국 태국베이 지부는 해당 지역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13년 1월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TI-DSP와 중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대한민국의 TI 지부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대만의 대통령, 국방부, 반부패기구, 사법부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TI-DSP는 2011년 이후로 국방 기관과 민간 부문에서의 반부패 조치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Defenc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과 대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방위사업청장과 부청장, 그 외 DAPA의 고위 공무원들과의 회의와 이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고위 공무원 120명이 참석한 2013년 1월의 리더십 행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TI-DSP는 2013년 1월에 한국 방산업체 20곳 이상이 참석한 국방 반부패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TI-DSP는 2011년에 TI 말레이시아 지부(TI-M)와 함께 국방 부패에 대한 공개 회의를 개최했으며, 군과 국방부, 활동가, 학자, 시민 사회가 이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 서기장과 그 외 고위 국방부 공무원을 만났으며 BFM 라디오와 말레이시아 Kini TV와 인터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12년에 TI-M의 무기 거래 조약 행사가 있었으며, 정부 대표가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무기 거래에 대한 반부패의 중요성을 논의했습니다.

TI-DSP와 TI 인도네시아 지부는 2013년 9월에 국방부가 참석한 행사에서 “감시 기구?”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 2월, TI-DSP는 일본의 도쿄에서 열린 세계 기업 협약 기구(Global Compact)의 반부패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이 세미나에는 많은 국방 민간 부문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TI-DSP는



태국 왕립 해군(Royal Thai Navy)이 독자적인 반부패 계획을 개발하는 중이었던 2012년 6월에 해군 대표와 만나 국방 부패 위험과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시 호주 국방부의 감찰감이었던 Ray Bromwich씨가 런던으로 찾아와 TI-DSP의 “국방부와 공군의 행동 규범: 무엇이 좋은 행동 규범을 만드는가?”에 대한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 출처와 증거

모든 정보와 증거는 GI 국가 개별 평가를 통해 얻었으며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government.defenceindex.org**를 방문하십시오.

당사의 조사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오랫동안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제공하고 있는 SIPRI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SIPRI, 2015. "2015년 4월 13일: SIPRI, 미국의 군비 감소와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의 군비 증가 발표". [온라인] 이용 가능: <http://www.sipri.org/media/pressreleases/2015/milex-april-2015>

SIPRI, 2015. "SIPRI, 미국을 선두로 한 무기 수출의 상승세와 아시아와 걸프 국가의 무기 수입 증가를 발표" [온라인] 이용 가능: <http://www.sipri.org/media/pressreleases/2015/at-march-2015>

SIPRI, 2015. SIPRI 자료표: 세계 군비 지출의 추세, 2014. [온라인] 이용 가능: <http://books.sipri.org/files/FS/SIPRIFS1504.pdf>

ASEAN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성명서와 코뮌িকে, 온건주의 국제적 운동에 관한 랑카위 선언, 2015년 4월, <http://www.asean.org/news/asean-statement-communicues/item/langkawi-declaration-on-the-global-movement-of-moderates>

ASEAN 정치 안보 공동체 청사진(2009) [www.asean.org/archive/5187-18.pdf](http://www.asean.org/archive/5187-18.pdf)(2015년 10월 20일에 이용함)

R Emmers, "ASEAN 내 인도네시아의 역할: 불완전한 부분적 리더십", The Pacific Review, Volume 27, Issue 4, 2014 (2015년 10월 20일에 이용함)

# 방법론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는 국방 기관의 부패 위험 수준을 측정하여 각 국가에 A(가장 좋음)부터 F(가장 나쁨)까지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등급은 7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의 점수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문항마다 0부터 4까지의 점수를 정부에 부여합니다. 그 종합 백분율 점수에 따라 해당 정부가 속한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다섯 가지 위험 분야에 대하여 국가마다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정치적 위험과 재정적 위험, 인사 위험, 작전 위험, 조달 위험입니다.

전문 평가자가 표준 문항 모음과 모범 응답을 이용하여 각 국가를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 최대 3명의 동료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평가를 검토했으며, 가능하면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각국 본부도 이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검토하고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정부에 권유했습니다. 2015년에는 MENA 지역의 정부 4곳(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에서 검토자를 제공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국방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고도의 기밀로 취급하는 국가를 어떻게 이 지수로 평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TI-DSP에서는 국방 기구의 투명성 부족은 기구의 부재 그 자체가 커다란 부패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보의 수준이 각 문항의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사항은, 기밀성 때문에 사례 연구와 실례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자나 연구자, 법에 의해 사례가 밝혀지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지수에서 일부 2013년 이전에 발생한 사례를 예로 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에 대하여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 GI)는 국방 및 안보 기관과 그 집행에 대한 부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의 존재 여부와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본 기구의 전문가팀은 국방 기관의 청렴성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정부에 제공하기 위해 폭넓고 다양한 출처와 인터뷰를 통해 77개의 지표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합니다. 본 보고서는 본 기구의 데이터에서 얻은 국가 위험 순위를 공개하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전반의 추세를 검토합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 국방  
및 안보 부문은 전 세계  
국방 및 안보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 일합니다**

**GOVERNMENT.DEFENCEINDEX.ORG  
TI-DEFENCE.ORG**